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9. 참 즐거운 노래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아와 우리가 살아온 나날을 돌아 봅니다. 주님을 잊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식들이 온통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평화와 기쁨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박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무기력해진 우리 영혼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견해와 유행, 편리함을 따르느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섬김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미가7:8	인도자
♠ 교 독 문	6. 시편15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노숙옥 권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66. 어지러운 세상 중에	다함께
성경봉독	I. 빌2:1-11	인도자
	II. 창13:8-18	조항범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뜻은 높게 몸은 낮게	김재흥 목사
	II. 복을 짓는 마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89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남을 위해 좋은 몫을 남겨두는 마음이 복된 삶의 초석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 사랑을 선택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순결하고 소박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불모의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몸으로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7월 동교회 모임	말씀 : 장영숙 전도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이성운 전도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정현주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홍순구	유영남	이영란	이증자
	헌금위원	한상익	김중수	김근중	배상순	최숙화	박효선

입술로만 외치는 것보다는

참 멋진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다. 사람들은 근사했다. 각 가정을 찾아가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흐뭇했다. 사람들이 성탄절에 가난한 이들을 돕자는 우리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교회는 어제 각종 야채들과 이런저런 인형들로 산더미를 이루었다.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선한 것이 있다.

물론 냉소주의자들은 의롭게 되기보다는 자비롭게 되기가 더 쉽다고 말하고, 냉철한 사회학자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가족 생활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만일 내게 가족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결코 내게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에 감리교의 연세가 많으신 한 목사님이 현대 사회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적인 나의 태도를 두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돌보아야 할 아이들 넷을 둔 아버지라면 사랑의 마음이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입술로만 외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1923년)

부흥회 유감

부흥회는 결코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나는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기에는 너무 차가운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평범한 부흥사들이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부흥사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진적 의미에서 기독교적 삶의 문제들을 드러내기에는 삶과 역사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너무 피상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들은 영혼을 죄와 혼돈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정서적인 헌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참극들이 악의보다는 오도된 열정과 균형을 잃은 미덕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가족을 한 사회를 구성하

는 이기적인 한 단위로 환원시킴으로써 진정한 가족 사랑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결코 도울 수 없다. 사정은 신중함이라는 덕성들에 과도하게 헌신함으로써 산업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만일 문제들을 단순화하지 않으면 정서적인 위기감을 조성할 수 없는 법이다. 대중들을 사로잡는 것은 멜로 드라마이다. 건전한 역사는 어느 정도 멜로 드라마적인 데가 있다. 삶과 역사 속에서 신과 악마는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승리에는 패배가 따르고 어떤 패배는 승리로 귀결되기도 한다. 신의 대리인들이 신성한 경우는 별로 없고 사탄의 추종자들이 꼭 악마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진리를 과도하게 단순화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융변적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권력은 늘 진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 삶에 대한 단순화는 합리화될 수도 있다. 모든 예술가는 단순화된 부조(浮彫)에 자기 생각을 드러내보이기 위해 세부를 생략하기도 한다. 부흥사들은 자신을 과학자가 아니라 예술가들로 여길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자기의 모범을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그가 풍자 만화가보다 더 나올 것이 없다는 데 있다.(1924)

합 정

오늘 ----연합 예배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그 교구의 목사는 내게 그의 ‘설비들’ (산업주의는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는 용어에까지 침입했다)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기가 부임한 후 교회가 얼마나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목회자들이 자기 전임자들이 한 일을 깎아 내리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그 완고한 경향성에 아주 환멸을 느끼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의 숨은 뜻을 알기 원한다면 그건 간단하다. 지금의 목회자들이 와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붕괴되어 있었다고 상상하면 된다. 물론 예외가 있음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님의 포도원에서 앞서 일한 이들에 대한 이런 치졸한 질시가 만연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갔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1924년)

- 리처드 니버의 <<어느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 중에서

지하철

프스.....척.....문이 닫혔습니다.
플랫폼에서 칼로 쪼개듯이 사람들을 돌로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이 지하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하철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안에 꼭 갇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개인이 아니고 군중이 되었습니다.
약간 큰 상자 안에 꼭 끼어 있는 젤리 파이처럼
한 덩어리로 실려가는 군중입니다.
주님, 서로 이름도 모르고 서로 무관한 이 군중은
아마도 주님께게서도 멀리 있을 것입니다.
이 군중과 하나가 된 내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깨닫습니다.
이 군중은 무겁습니다.
이토록 둔해진 내 발을 짓밟는 이 군중은 참말 무겁고
손님을 지나치게 많이 실은 내 작은 배는 너무나 벅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 사람들을 못 본 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나의 형제자매들입니다.
나는, 나 혼자서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지하철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찾겠습니다.
-미셸 파스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찬양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윤석철 장혜숙 이선림 이한림 김명희
 최숙화 김정길 김용길 최영혜 서원금 박영숙 김윤수 박옥경 임원민
 임수연 왕성환 강순배 김중수 이순정 윤수진

월정헌금:

김현영 정원석 김명순 윤주원 최윤선 문금석 조병주 박석희 조항미
 김종문 지명주 이갑재 고숙이 송의섭 류건형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방문성 박해경 왕성환 강순배 왕수명 문금석 김성수

생일감사헌금: 윤여준

구도헌금: 김철수 장혜숙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연합속회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교육부회의** : 오늘 12시 50분에 청년부실에서 교회학교 전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3. **동호회** :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 활동으로 모입니다. 귀한 사귄의 자리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4. **아름다운원로모임** : 7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5. **성경학교** :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화남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하는 환경 캠프입니다.
6. **세계감리교대회** : 세계감리교대회(WMC)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금란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23일)에는 이 모임에 참여한 외국인 대표 4분이 우리 교회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7. **신앙실천** : 세계 감리교 대회와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 헌화 : 박홍재 권사 (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